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오리진이 되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창조경 영학교를 개교해 화제를 모은 강신장씨의 최신 저서이다. 인문학은 물론 음악과 미술이 만나 기업현장에서 어떻게 창조가 실현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도 있다.

먼저 담배에 대한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부터 제시한다.

담배 한 갑 20개비 가운데 핑크필터와 핑크필터를 넣어줄 것을 제안한다. 담배를 건넬 때 골드·핑크필터는 받는 이에 게 새로운 인상과 추억을 안겨줄 것이라고. 물론 비즈니스 대화가 화기애애하게 조성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저자는 창조학 원리를 2가지로 제시한다. 물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 가지면 운명이 바뀐다고 역설한다. 하나는 아픔을 들여다보는 힘, 또 하나는 기쁨을 보태는 힘이다. 먼저 한



사례로 들려주는 창조경영

경희의 스텝초기기는 물결처럼주는 주부들의 아픔을 보았기 때문에 창조했고, LG의 메카폰은 하루 다섯 번씩 이슬람 성지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하는 무슬림의 고민을 보았기에 가능했다는 해설이다. 기쁨을 보태는 힘에는 융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대표 사례로 일본 롯데의 신제품 핏츠 껌을 예로 든다. 2009년 3월 출시 이후 3주 동안 2000만 개가 팔렸고, 급기야 모자라서 한동안 물건을 못 팔았다. 비결은 종전의 딱딱한 껌에 대한 아픔을 극복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향기와 명랑 크기의 심플한 크기, 그리고 겉 뚜껑을 열면 껌을 바로 입에 넣을 수 있는 편리성 때문이다.

영국 프로축구의 성공사례도 올라왔다. 축구 중추국 영국은 1990년까지 강력한 프로리그가 없어서 독일의 분데스리가, 이탈리아의 세리에A,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에 밀려 주변국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1991년 새로운 리그를 출범시킨 이후 세계 최고의 축구시장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모든 것을 개방했다. 20개 구단 가운데 3분의 1이 외국인 구단주다. 감독은 50%, 선수는 60%가 외국인이다. 대표적인 명문팀 첼시는 개막전 출전선수 전원을 외국인 선수로 내보낸 적도 있다. 또 평가를 엄격하게 했다. 1부 리그인 챔피언십 리그에는 24개 팀이 참여하는데, 시즌이 끝나면 하위 3팀이 2부로 강등된다. 반대로 2부의 1, 2위 팀은 자동으로 1부 리그로 승격된다. 나머지 1팀 승격은 2부 3-6위 팀의 플레이오프 승자가 차지한다. 1부에서 2부로 강등당하는 건 연봉이나 명예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어떤 경쟁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다.

<오리진이 되라>의 저자 강신장씨는 26년간 삼성의 인력 개발원, 회장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경제연구소 등에서 일했다. 지난 1월 삼성을 나와, 현재 수출 비중 98%, 70개 국에 3000개의 대리점과 함께 일하는 헬스케어 컴퍼니 (주)세라젠의 사장으로 있다.

오리진이 되라 | 강신장 지음 | (주)쌤앤퍼커스 | 1만4000원

진정화

자유롭지 않다면 누구든 수감자

수감자 캘빈 말로네의 감옥에서 만난 부처 이야기

바깥세상에서는 불쾌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도피처들이 많다. 그 상황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다. 잊기 위해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숲을 거닐 수도 있다. 아니면 먹고 싶은 것을 먹거나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감옥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 감옥은 타인의 기분 따위는 아랑곳 않는다. 폭력배들과 사기꾼, 다혈질에 포식자 같은 사람들, 무식하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성실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

가장 혹행죄로 20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있던 캘빈 말로네는 가장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가장 큰 자유를 얻어냈다. 그가 고결한 삶을 살아가서 아니라, 진리의 길이아말로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임을 터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부정성의 극한을 보여주는 표본 같은 감옥에서,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고귀한 가르침을 만났다.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들이었다.

캘빈 말로네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불교 수행을 시작했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깨달은 점들을 <내 안의 부처>에 담았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시각에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 나는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아니 어쩌면 환경 때문에 더 따스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돼 갔다. 그리고 내가 부처의 근본적인 가르침들을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다며 자만하는 순간, 수감자나 교도관들이 마치 스승처럼 내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어디나 그렇듯 감옥에도 수많은 스승들이 있다. 수행의 기회도 수없이 많다.”

이렇듯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저자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엄청난 가르침과 위안을 준다.

캘빈은 강철 감옥이든 자신이 만들어낸 마음의 감옥이든, 이 감옥에서 자유로워지기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한 수감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렇듯 수행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캘빈은 교도소 내 예배당에서 도서관 업무도 함께 보는 일자리를 얻게 되고 그 곳에서 불교서적을 찾던 노란이라는 젊은 청년을 만난다. 캘빈은 노란으로부터 받은 <쉬운 영어로 된 주의집중>을 읽고 꼭 빠져버리고 만다. 그 뒤 노란과 감옥에서 ‘부디스트 타임’이라는 수행모임을 만들어 수행을 하기 시작한다.

캘빈은 여기서 배우고 느낀 것들과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온전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한다.

가끔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캘빈에게도 분노와 다툼 같은 역경이 다가오지만 그는 실천의 힘에 의지해 수행을 지속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느낀 기쁨과 평온을 자비의 형태로 다른 수감자들에게 되돌려 준다. 그야말로 캘빈은 가장 척박하고 가장 불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귀한 진리의 꽃을 피워낸 것이다. 바로 ‘진흙 속의 연꽃’을 말이다.

2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책에서는 캘빈이 동성애자, 스킨헤드, 아리안인, 인종차별 주의자 등 다양한 종류의 인간군상을 만나며 그들로부터 배우기도하고, 그들에게 불교를 전해주기도 한다. 캘빈의 눈을 통해 봤을 때 어떠한 것으로도 구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수감자들에게도 불성(佛性)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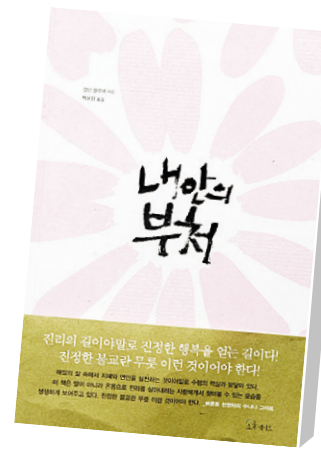
저자 캘빈이 선(禪)스승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책에서 부처가 가르친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이 진리를 그의 행동 속에 통합시키기 위해 온 마음으로 정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내 안의 부처>의 저자인 캘빈 말로네는 1951년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시골출신으로 노예의 손자였던 아버지와 독일 뮌헨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수감 전 알라칼라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며 유럽 역사를 공부하고 유럽 전역을 폭넓게 여행한 캘빈은 감옥에 들어간 후부터 불교 수행에 들어갔으며, 이후 자신이 감옥 생활에서 경험한 것들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또 불교잡지나 소식지에 많은 글을 쓰고, 출옥 후의 저음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도 일조했으며, 전국 감옥에 있는 불교신자들을 위해 영주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2009년 10월 조기 석방돼 현재 불교소설을 집필하고 있다.

내 안의 부처 | 캘빈 말로네 지음 | 소울메이트 펴냄 | 1만2000원

이아나 기자 bohyung@buddhapia.com



명상으로 행복한 나이 들기

손해진이 제안하는 명상법



행복하게 나이 드는 명상의 기술 손해진 지음 마고북스 펴냄 | 1만3000원

명상을 하면 평온한 마음, 풍부한 감성, 활기찬 정신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나이드는 사람들이 하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명상의 기본정신이 ‘행복하게 나이 드는 기술’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행복하게 나이 드는 명상의 기술>은 명상이 나이 들므로 인해 후반생에 맞닥뜨리게 될 신체적, 정신적 노화 징후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대처방안을 나눌 수 있는지 탐사한다.

이 책은 노화에 관련된 제반문제인 쇠퇴와 질병, 의존과 우울, 치매와 죽음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처방안을 명상적 지혜와 실천수행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명상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제 명상수행자들의 구체적인 체험담과 명상 노하우를 담았으며,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명상수행방법을 그림과 함께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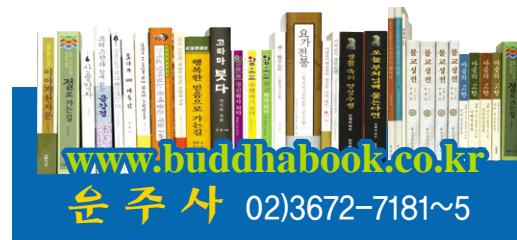
행복하게 나이 드는 명상의 기술 | 손해진 지음 | 마고북스 펴냄 | 1만3000원

이아나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Rank), 도서명 (Title), 저자 (Author), 출판사 (Publisher). Lists top 10 Buddhist books for the week.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불교 A에서 Z까지

초격 스님이 전하는 불교의 모든 것

물질문명과 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극심한 빈부격차, 종교간 갈등,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병폐가 일어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주의를 표방한 불교와 명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찍이 대안을 마련해 놓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부처님이다.

선견지명이 있었던 부처님은 빈부 격차 문제는 회향의 가르침으로, 환경 문제는 불살생(不殺生)의 가르침으로 해결했다. 온갖 벌레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여름철, 혹 길을 걷다가 실수로 밟아 죽일까 염려돼 선방에 앉아 하얀거를 행하는 스님들의 마음이 구체적 예다.

파주 보광사 주지 초격 스님은 “이처럼 부처님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중생들이 모두가 ‘나’ 자신만을 알고 율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놓았다. 그래서 ‘불교가 곧 대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만 수천 년 간 이어져 발전해 온 종교라 교리 이해와 수행법이 만만치 않다. 여러 불보살들과 불교 경전, 예법들, 각종 장엄물이 지닌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 않아 그만 관심을 거두고 만다.

이러한 점이 아쉬웠던 초격 스님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불교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저절로 절로 향하는 마음>을 펴냈다.

수년간 불교요양대학에서 교육해오던 경험들을 모은 이 책에는 사찰이 갖는 의미부터 제사천, 법전, 팔부 신중의 호법신중, 공양의 종류, 부처님의 일생,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재와 불상 및 부처님의 10대 제자 등 불교의 A to Z가 담겨있다.

가능한 한 전문 용어는 풀이하려고 노력했으며, 가상의 두 보살님을 설정하고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구성해 불교 입문자들이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저절로 절로 향하는 마음 | 초격 지음 | 북스 펴냄 | 1만2000원

이아나 기자

50여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역학·역술의 모든것 완결판 세트(5종) 출간!

鬼神도못할 神秘의冊

본 冊 5종만 습득하면 누구나 四柱박사, 성명학박사, 인생철학박사가 될수 있다. 역학자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교과서이다. 어느 다른 冊 어느누구에게 학습받을 필요없이 기초부터 응용, 감정, 판단까지 알기쉽게 엮었다.

四柱運法

성도이름도나이드생일도 물지 않고 알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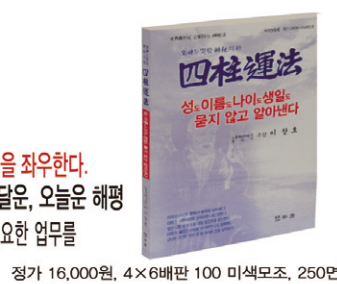
지금도 돈주고 행운의 숫자를 받으십니까? 나만의 행운의 숫자를 가질 수 있는 비법이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50년 경력 - 命理學·姓名學·地理學 / 編者 秀岩 李昌浩 電話 : 02-962-9944~5 FAX: 02-967-9944 H.P : 011-292-9940

출판 및 판매처: (주)반도문화사 전화: 02)723-1001(대) 팩스: 02)720-2032 서울특별시 중로구 명주동 3-1 진양B/D 2층

四柱運法 (사주운법)

- ▶ 세계최초로 성도 이름도 나이드 생일도 물지 않고 알아낸다. ▶ 한낱 한시에 태어난 四柱가 한쪽은 나쁜 한쪽은 좋지 ▶ 부귀, 권세, 실배, 빈곤, 강도, 살인자 ▶ 행운의 숫자가 운명을 좌우한다. ▶ 역대 대통령들의 四柱八字 ▶ 급변, 내연은, 이별은, 오늘날 해평 ▶ 나에게 맞는 옷 색깔, 옥색길이 맞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중요한 업무를 보는데 실패다.



정가 16,000원, 4x6배판 100 미색모조, 250면

四柱博士 (사주박사)

- ▶ 四柱學의 모든 것을 기초부터 응용, 해석, 감정, 평가까지 30여권의 책중 핵심을 골라 요점을 기록하였다. 이 한편의 책만 습득하면 어느 누구나 100% 四柱博士가 될수 있다. ▶ 보기쉽고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게 최선을 다하였다.



정가 38,000원, 4x6배판 80 미색모조, 540면

周易姓名學 (주역성명학)

- ▶ 최초로 한글, 한글, 영어 발음을 응용 해석하였다. ▶ 五行과 수리편으로 분리하여 보기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 페이지에 한 운영의 뜻풀이로 엮었다. ▶ 성명학으로만 응용하여도 명사가 될수 있는 것이다.



정가 38,000원, 4x6배판 100 미색모조, 300면

작명하는데 필수적인 귀중한 책

- ▶ 성공과 행복 소망을 이루는 길이다. ▶ 인생 전반에 대한 모든 궁극점을 해결할 수 있다. ▶ 침대방향, 책상방향, 금고방향, 카운터방향 등 ▶ 이사방향, 집좌향, 주택 묘지운법



정가 52,000원, 4x6배판 표지 600면 2도인쇄 양장본

원본 그림 唐四柱 한글해석판

- ▶ 원본의 당사주를 핵심적으로 개선하여 어느 누구나 보기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해설을 전면적으로 한글표기로 엮었다. ▶ 초년, 중년, 말년운과 부모, 형제, 부부자식, 재물, 직업, 수명운 등을 자세하게 해설하였다.



당사주 책 내용중 일부



정가 52,000원, 국배판(가로 310x세로220) 260면 칼라(상,좌,좌) 제본